

부산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조사연구

배정^{*}, 정상태^{**}, 손혜숙^{**}, 염석란^{**}, 박현주^{***}, 조성일^{**}

본 연구는 부산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를 조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로서, 부산광역시 총 17,088가구를 연구대상가구로 계통표본 추출하여 조사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면접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조사표를 배부 후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고 회수하였다. 신뢰도는 95%신뢰수준 하에서 구간별 오차 한계 $\pm 3.0\%$ point로 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의식 및 행태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인구의 안전의식은 교통안전과 가정 내 안전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인식도와 낮은 실천율을 나타내 안전에 취약계층임을 드러냈다. 특히, 교통안전에서 노인이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할 때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증진 교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참여 교육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노인인구에 대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정책 제정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부산시민, 안전의식, 안전행태

1. 서론

안전(safety)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류의 발전과 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최근 사회의 산업화와 복잡화 등으로 인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준필·박남수, 2008).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사고란 "알아볼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미국안전회의(National Safety Council)는 "인간에게 상처 또는 사망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Heinrich(1980)에 의하면 사고의 88%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되며,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 등에 의해 예방될 수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단지 2%에 불과하다 하였으며,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불안전한 환경에 의한 사고 역시 안전교육, 과학, 기술 및 안전 재해법의 집행 등에 의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손상(injury)은 질병이외의 외적 요인에 의해 다치는 것 즉,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건으로 발행하

* 제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로운 결과(세계보건기구, 1989)라고 보고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손상 예방을 위한 안전의 요소를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손상발생률, 안전행태 등 외적 기준에 의해 측정되는 객관적 차원(objective dimension)과 불안감, 안전인식 등 내적인 느낌이나 인식의 주관적 차원(subjective dimension)으로 설명하고 있다(Svanstrom & Zhao, 2003).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손상을 개인의 실수나 운명으로 간주하였지만, 오늘날은 손상예방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사전에 예방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표와 자료수집방법의 개발로 기존의 객관적 측면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의 안전 개념이 안전사업으로 계획되고 수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속성장의 부작용으로 인재(人災)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 및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 부족으로 심각한 피해와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후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본 계획과 더불어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다(김영수, 2009).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정책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 통계청의 손상사망률 결과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손상사망률이 2000년 60.6명에서 2009년 65.8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0). 특히 부산광역시도 인구 10만 명당 손상사망률이 2000년 49.5명에서 2009년 63.0명으로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으며, 지난 10년 간 손상으로 인한 사망 증가율은 27%로 전국에서 제일 가장 높았다. 이런 손상 통계는 단지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일 뿐 실제 손상으로 인한 장애, 입원, 의료기관 이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주요 사망원인별 조기 사망으로 인한 손실년수는 암, 손상 순이며, 손실소득비용은 손상이 암보다 월등히 높아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다(배정이 외, 2009). 특히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비해 젊은 연령층에서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과 행태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국제안전도시사업을 통하여 부산시민의 안전 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높은 안녕상태를 누릴 수 있는 선진안전 문화를 정착하여 부산시민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누구나 안전하게 느끼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부산시민들의 안전의식과 행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안전도시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반영하여 안전사고예방 전략구축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부산광역시민의 가구원 현황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거주 17,088가구 중 53,744명의 가구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면접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조사표를 배부 후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고 회수하였다. 표본조사구를 계통추출하여 구군별 107조사구씩, 부산광역시 전체 1,712조사구를 선정하였고, 16개 구군별 1,068가구씩 총 17,088가구가 연구대상가구로 표본추출 되었다. 신뢰도는 95%신뢰수준 하에서 구군별 오차 한계 $\pm 3.0\%$ point로 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표 1>).

<표 1> 부산광역시 구군별 응답 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 가구, 명)

구·군	응답 가구		응답 가구원(만 19세 이상)	
	가구수	백분율	가구원 수	백분율
중구	215	6.2%	517	6.0%
서구	214	6.2%	520	6.1%
동구	214	6.2%	545	6.3%
영도구	215	6.2%	531	6.2%
부산진구	215	6.2%	540	6.3%
동래구	214	6.2%	567	6.6%
남구	214	6.2%	534	6.2%
북구	214	6.2%	527	6.1%
해운대구	214	6.2%	508	5.9%
사하구	214	6.2%	515	6.0%
금정구	214	6.2%	527	6.1%
강서구	214	6.2%	565	6.6%
연제구	214	6.2%	515	6.0%
수영구	214	6.2%	528	6.1%
사상구	214	6.2%	545	6.3%
기장군	215	6.2%	538	6.3%
합계	3,428	100.0%	8,522	100.0%

1. 성별, 연령별

응답 가구원 중 성별로는 남자 48.5%, 여자 51.5%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9~44세 45.6%, 45~64세 41.4%, 65세 이상은 13.2%였다(<표 2>).

<표 2> 성별, 연령별에 따른 응답 가구원

(단위 : 명)

연령대(세)	남자	여자	합계
19-44	1,824(45.6%)	1,943(45.7%)	3,767(45.6%)
45-64	1,695(40.6%)	1,839(41.6%)	3,534(41.1%)
65-	617(13.8%)	604(12.7%)	1,221(13.2%)
합계	4,136(48.5%)	4,386(51.5%)	8,522(100.0%)

2. 교육정도별

교육정도는 고등학교가 전체 3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교(4년제 이상) 20.9%, 대학(4년제 미만) 15.0%, 중학교 14.5%, 초등학교 11.6%, 무학 2.6%, 대학원 이상 2.3% 순이었다(<표 3>).

<표 3> 교육정도에 따른 응답 가구원

(단위 : 명)

교육정도	응답 가구원 수	백분율
무학	250	2.6%
초등학교	1,028	11.6%
중학교	1,276	14.5%
고등학교	2,874	33.1%
대학(4년제 미만)	1,235	15.0%
대학교(4년제 이상)	1,683	20.9%
대학원 이상	176	2.3%
합계	8,522	100.0%

3. 직업별

직업은 전업주부(육아/가사)가 24.0%, 판매업 종사자 8.8%, 단순노무 종사자 7.9%, 사무 종사자 7.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2%, 학생/재수생 6.1%, 서비스업 종사자 5.8%, 관리직 종사자 0.9%, 농업어업 축련 종사자 0.7%, 군인(직업군인) 0.2%순이었다. 그리고 기타 직업이 17.4%로 나타났다(<표 4>).

<표 4> 직업에 따른 응답 가구원

(단위 : 명)

직업	응답 가구원 수	백분율
관리직 종사자	73	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88	7.5%
사무직 종사자	648	7.8%
서비스업 종사자	516	5.8%
판매업 종사자	769	8.8%
농림어업 축련 종사자	180	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530	6.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00	6.2%
단순노무 종사자	699	7.9%
군인(직업군인)	17	0.2%
학생/재수생	523	6.1%
전업주부(육아/가사)	1,984	24.0%
기타	1,495	17.4%
합계	8,522	100.0%

III. 부산광역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현황

1. 부산광역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현황

1) 운전여부

부산광역시 응답자 전체 중 40.2%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남자 62.6%, 여자 19.1%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19-44세 47.1%, 45-64세 41.9%, 65세 이상은 11.4%로 고연령층의 비율이 아주 낮았다(<표 5>).

<표 5> 부산광역시민의 운전여부

성별	연령대(세)	운전여부
남자	19-44	67.9%
	45-64	71.3%
	65-	20.8%
	합계	62.6%
여자	19-44	27.7%
	45-64	15.0%
	65-	1.9%
	합계	19.1%
계	19-44	47.1%
	45-64	41.9%
	65-	11.4%
	합계	40.2%

2) 손상예방 가능여부

전체 응답자 중 74.9%가 손상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는 77.0%, 여자는 73.3%로 남자가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9~44세 78.6%, 45~64세 72.6%, 65세 이상 69.9%로 고연령층 일수록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표 6>).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신체의 노화로 인해 외부자극에 대한 신체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손상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인 남성에 비해 노인 여성은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더 많아 활동성이 월등히 감소에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6> 부산광역시민의 손상예방여부

성별	연령대(세)	손상예방 가능여부
남자	19-44	80.8%
	45-64	74.3%
	65-	72.3%
	합계	77.0%
여자	19-44	76.5%
	45-64	71.1%
	65-	67.4%
	합계	73.0%
계	19-44	78.6%
	45-64	72.6%
	65-	69.9%
	합계	74.9%

3) 심폐소생술 교육여부 및 참여의향

전체 응답자 중 20.3%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향후 참여의향 비율은 41.5%로 나타났다(<표 7>).

(1) 성별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여부는 남자 29.2%, 여자 11.9%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 정도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9~44세 30.3%, 45~64세 14.3%, 65세 이상 4.8%로 고연령층일수록 심폐소생술 교육 비율이 아주 낮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더 많은 것은 군대나 예비군 훈련 기간에 안전교육을 함께 이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 성별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의향은 남자 42.2%, 여자 40.9%로 서로 비슷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9~44세 52.8%, 45~64세 39.7%, 65세 이상 18.4%로 고연령층일 때 참여의향 비율이 아주 낮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는 월등히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7> 부산광역시민의심폐소생술 교육여부 및 참여의향

성별	연령대(세)	심폐소생술 교육여부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의향
남자	19-44	42.9%	47.7%
	45-64	20.9%	44.5%
	65-	8.5%	25.4%
	합계	29.2%	42.2%
여자	19-44	18.5%	56.1%
	45-64	8.2%	35.9%
	65-	1.1%	11.9%
	합계	11.9%	40.9%
계	19-44	30.3%	52.8%
	45-64	14.3%	39.7%
	65-	4.8%	18.4%
	합계	20.3%	41.5%

4) 안전관련 행사 참가 경험 및 의향

전체 응답자 중 17.3%가 안전관련 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안전관련 행사 참가의향 비율은 38.7%로 나타났다(<표 8>).

(1) 성별에 따른 안전관련 행사 참가비율은 남자 26.6%, 여자 8.6%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이는 군대, 예비군, 민방위에서의 안전관련 교육실시에 따른 결과로 군관련 외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관련 행사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령대별로는 19~44세 22.3%, 45~64세 15.9%, 65세 이상 5.0%로 고연령층일 때 안전관련 행사 참가경험이 아주 낮았다.

(2) 성별에 따른 향후 안전관련 행사 참가의향은 남자 40.0%, 여자 37.4%로 서로 비슷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9~44세 46.7%, 45~64세 36.2%, 65세 이상 19.4%로 고연령층일 때 참가의향 비율이 아주 낮았다. 안전관련 행사가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련 행사가 많이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안전관련 행사 참가의향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부산광역시민의 안전관련 행사 참가 경험 및 의향

성별	연령대(세)	안전관련 행사 참가경험	향후 안전관련 행사 참가의향
남자	19-44	32.5%	43.0%
	45-64	26.1%	41.4%
	65-	8.9%	26.4%
	합계	26.6%	40.0%
여자	19-44	12.8%	50.1%
	45-64	6.5%	31.4%
	65-	1.1%	12.3%
	합계	8.6%	37.4%
계	19-44	22.3%	46.7%
	45-64	15.9%	36.2%
	65-	5.0%	19.4%
	합계	17.3%	38.7%

5) 향후 안전관련 행사 불참가 이유

향후 안전관련 행사 불참가 이유로는 시간부족이 전체 50.9%로 가장 높았으며, 무관심 23.3%, 귀찮아서 13.9%, 불필요성 6.9%, 기타 5.0%로 나타났다(<표 9>).

안전관련 불참가이유가 사회활동이 많은 젊은층인 경우 시간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노인은 행사에 대한 무관심과 행사참석이 귀찮은 것을 이유로 들어 연령층에 따른 행사진행이나 홍보가 달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부산광역시민의 향후 안전관련 행사 불참가 이유

성별	연령대(세)	귀찮아서	무관심	불필요성	시간부족	기타
남자	19-44	13.9%	17.2%	4.8%	62.6%	1.4%
	45-64	10.1%	19.9%	6.7%	60.1%	3.3%
	65-	21.4%	31.9%	9.5%	21.4%	15.8%
	합계	13.7%	20.8%	6.4%	54.4%	4.7%
여자	19-44	13.5%	19.8%	4.5%	61.5%	0.7%
	45-64	12.6%	25.5%	9.5%	49.7%	2.7%
	65-	19.0%	36.4%	8.3%	15.4%	20.8%
	합계	14.1%	25.4%	7.4%	47.7%	5.3%
계	19-44	13.7%	18.5%	4.7%	62.0%	1.1%
	45-64	11.5%	23.0%	8.3%	54.2%	3.0%
	65-	20.1%	34.3%	8.9%	18.2%	18.5%
	합계	13.9%	23.3%	6.9%	50.9%	5.0%

6)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 대상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 대상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48.6%가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 13.7%, 초등학생 10.1%, 영유아 8.8%, 중고등학생 7.6%, 유치원생 5.9%, 성인 5.0% 순이었다(<표 10>).

안전대책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특히 노인은 노인 스스로를 중요한 안전대책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실천과 인식을 달리 하고 있었다.

<표 10>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 대상

성별	연령대(세)	영·유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노인	모두다	기타
남자	19-44	11.1%	6.4%	13.4%	7.9%	5.8%	6.8%	48.3%	0.3%
	45-64	5.6%	5.2%	8.2%	8.8%	5.0%	11.5%	55.5%	0.1%
	65-	4.5%	2.9%	6.4%	2.8%	4.4%	34.4%	43.5%	1.0%
	합계	8.0%	5.4%	10.3%	7.5%	5.3%	12.6%	50.5%	0.3%
여자	19-44	13.6%	7.8%	14.1%	9.7%	4.0%	5.5%	45.0%	0.3%
	45-64	7.0%	5.4%	6.8%	6.6%	5.5%	17.1%	51.4%	0.3%
	65-	4.3%	3.9%	5.2%	4.2%	4.2%	40.1%	38.1%	0.0%
	합계	9.7%	6.3%	9.9%	7.7%	4.6%	14.8%	46.8%	0.2%
계	19-44	12.4%	7.1%	13.8%	8.8%	4.9%	6.1%	46.6%	0.3%
	45-64	6.4%	5.3%	7.4%	7.6%	5.3%	14.4%	53.3%	0.2%
	65-	4.4%	3.4%	5.8%	3.5%	4.3%	37.2%	40.8%	0.5%
	합계	8.8%	5.9%	10.1%	7.6%	5.0%	13.7%	48.6%	0.3%

7) 안전대책 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안전대책에서는 교통안전이 36.1%로 가장 높았으며, 폭력예방(성폭력, 폭행 등) 14.0%, 신변안전(유괴, 미아 등) 13.8%, 응급처치 10.3%, 가정내 안전 6.7%, 운동 및 여가활동 안전 6.2%, 화재안전 5.1%, 자연재해안전(폭우, 폭설 등) 3.4%, 소비자 안전(안전물품 구매) 2.2%, 자살예방 1.5 순이었다(<표 11>).

남녀노소할 것 없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안전대책으로 교통안전을 꼽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가 탑승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 중에도 언제든지 발생해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1> 안전대책 시 우선순위

성 별	연령대 (세)	교통 안전	화재 안전	신변 안전 (유괴, 미아 등)	자연재해 안전 (폭우, 폭설 등)	운동 및 여가 활동 안전	소비자 안전 (안전 물품 구매)	응급 처치	폭력 예방 (성폭력, 폭행 등)	자살 예방	가정 내 안전	기타
남 자	19-44	36.1%	4.8%	14.9%	3.2%	5.5%	1.5%	12.1%	15.0%	1.0%	5.2%	0.7%
	45-64	40.9%	5.9%	10.2%	5.0%	5.7%	2.2%	8.8%	12.9%	1.9%	5.6%	0.7%
	65-	42.7%	4.4%	9.3%	3.6%	10.5%	2.2%	7.6%	7.0%	1.6%	10.6%	0.7%
	합계	39.0%	5.2%	12.2%	4.0%	6.3%	1.9%	10.1%	13.0%	1.4%	6.1%	0.7%
여 자	19-44	28.5%	3.8%	19.6%	2.1%	4.4%	1.7%	12.7%	19.8%	1.9%	5.0%	0.3%
	45-64	36.2%	6.0%	12.0%	3.8%	7.3%	3.2%	8.9%	12.3%	1.3%	8.6%	0.4%
	65-	42.2%	6.4%	10.3%	3.0%	8.8%	2.3%	8.0%	6.5%	1.6%	10.7%	0.4%
	합계	33.5%	5.0%	15.3%	2.9%	6.2%	2.4%	10.5%	15.0%	1.6%	7.3%	0.4%
계	19-44	32.2%	4.3%	17.3%	2.6%	5.0%	1.6%	12.4%	17.5%	1.4%	5.1%	0.5%
	45-64	38.4%	6.0%	11.2%	4.4%	6.5%	2.8%	8.8%	12.6%	1.6%	7.2%	0.5%
	65-	42.4%	5.4%	9.8%	3.3%	9.6%	2.2%	7.8%	6.7%	1.6%	10.7%	0.5%
	합계	36.1%	5.1%	13.8%	3.4%	6.2%	2.2%	10.3%	14.0%	1.5%	6.7%	0.5%

8) 안전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

전체 안전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에서는 TV/라디오 65.7%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11.8%, 신문/잡지 11.7%, 직장/산업현장에서의 교육 4.3%, 주위사람 3.5%, 학교 및 교육기관 1.9%, 안전관련 기관의 홍보 0.9% 순이었다(<표 12>).

이는 고연령층에 비하여 저연령층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안전관련 정보를 접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고연령층은 거의 대부분 TV/라디오가 주경로로 나타났다.

<표 12> 안전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

성 별	연령대 (세)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주위 사람	학교 및 교육기관	직장/ 산업현장 에서의 교육	안전 관련 기관의 홍보	기타
남 자	19-44	12.7%	50.2%	25.4%	1.7%	2.1%	6.2%	1.4%	0.3%
	45-64	16.8%	66.3%	3.6%	1.9%	0.7%	8.7%	1.7%	0.2%
	65-	13.8%	78.2%	0.5%	4.8%	1.2%	1.1%	0.3%	0.0%
	합계	14.5%	60.7%	13.1%	2.2%	1.4%	6.5%	1.4%	0.2%
여 자	19-44	9.5%	58.9%	21.2%	2.8%	4.1%	2.7%	0.6%	0.2%
	45-64	10.0%	78.9%	2.2%	5.1%	1.0%	2.2%	0.6%	0.0%
	65-	4.3%	83.8%	0.1%	10.6%	0.1%	0.2%	0.1%	0.9%
	합계	9.1%	70.4%	10.6%	4.8%	2.3%	2.2%	0.5%	0.2%
계	19-44	11.1%	54.7%	23.2%	2.3%	3.1%	4.4%	1.0%	0.2%
	45-64	13.3%	72.9%	2.9%	3.6%	0.9%	5.3%	1.1%	0.1%
	65-	9.1%	81.0%	0.3%	7.7%	0.7%	0.7%	0.2%	0.4%
	합계	11.7%	65.7%	11.8%	3.5%	1.9%	4.3%	0.9%	0.2%

9) 부산광역시민의 평소 운전습관

평소 운전습관으로는 음악을 크게 트는 비율이 21.5%, 휴대폰 및 핸드프리 사용 49.3%, 음식물 섭취 및 흡연 29.7%, 네비게이터 및 TV를 봄 28.2%, 어린이 보호차량 앞지름 12.6%, 앞차의 안전거리 확보 79.8%, 어두울 시 미등사용 87.2%, 교차로 정지선 지킴 89.5%, 긴급 출동차량에게 우선양보 93.6%로 나타났다(<표 13>).

평소 운전습관에서 추돌사고의 위험이 높은 습관 중 휴대폰 사용과 음식물 섭취 및 흡연, 네비게이터로 TV시청 등은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청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교통 사고 중 추돌사고가 가장 많은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실제 행동과 응답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3> 부산광역시민의 평소 운전습관

성 별	연령대 (세)	음악을 크게 트	휴대폰 및 핸즈프리 사용	음식물 섭취 및 흡연	네비게이터 및 TV를 봄	어린이 보호 차량 앞지름	앞차의 안전 거리 확보	어두울 시 미등 사용	교차로 정지선 지킴	긴급 출동차량 에게 우선 양보
남 자	19-44	28.3%	58.8%	40.6%	34.3%	12.8%	78.0%	87.9%	89.0%	93.8%
	45-64	14.3%	45.3%	30.8%	27.8%	13.9%	80.0%	87.1%	89.5%	94.0%
	65-	11.8%	30.8%	20.5%	24.7%	13.8%	80.1%	88.2%	89.6%	90.9%
	합계	21.1%	51.3%	35.2%	31.0%	13.4%	79.0%	87.6%	89.2%	93.7%
여 자	19-44	27.1%	47.2%	13.3%	21.7%	11.2%	83.6%	88.2%	92.3%	94.1%
	45-64	14.3%	36.1%	11.8%	16.6%	8.8%	79.0%	82.2%	86.6%	91.0%
	65-	5.0%	15.0%	16.7%	0.0%	5.0%	85.0%	76.7%	85.0%	90.0%
	합계	22.7%	43.2%	12.9%	19.9%	10.4%	82.1%	86.1%	90.4%	93.0%
계	19-44	27.9%	55.3%	32.3%	30.5%	12.4%	79.7%	88.0%	90.0%	93.8%
	45-64	14.3%	43.6%	27.3%	25.7%	13.0%	79.8%	86.2%	88.9%	93.4%
	65-	11.3%	29.6%	20.3%	22.8%	13.1%	80.4%	87.3%	89.3%	90.9%
	합계	21.5%	49.3%	29.7%	28.2%	12.6%	79.8%	87.2%	89.5%	93.6%

10) 거주지역의 도로 및 인도 보행안전 상태

부산광역시 전체 거주지역의 도로 보행안전 상태에서는 과속주행 차량 있음 55.0%, 차들이 보행자에게 양보 없음 56.5%, 횡단보도 표시 흐릿함 24.5%였으며, 인도 보행안전 상태에서는 노면 상태불량 51.2%, 인도에 장애물 52.4%, 폭이 좁아 통행불편 54.7%, 인도와 차도 미분리 46.3%, 눈, 얼음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음 26.3%로 나타났다(<표 14>).

운전자들이 일반도로가 아닌 거주지역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중심으로 생각해 거주지역 내에서는 보행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 14> 거주지역의 도로 및 인도 보행안전 상태

구분	보행안전 상태	백분율
도로	과속주행 차량 있음	55.0%
	차들이 보행자에게 양보 없음	56.5%
	횡단보도 표시 흐릿함	24.5%
인도	노면 상태불량	51.2%
	인도에 장애물	52.4%
	폭이 좁아 통행 불편	54.7%
	인도와 차도 미분리	46.3%
	눈, 얼음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음	26.3%

11) 부산광역시민의 평소 교통안전 생활습관

교통안전 생활습관으로는 무단횡단 않음 76.2%, 녹색신호가 아닐시 건너지 않음 92.4%, 길 건너기 전과 도중 좌우 살핌 94.6%, 차도에 내려와 택시, 버스를 기다리지 않음 84.4%로 나타났다(<표 15>).

부산시민은 보행 시 교통안전 수칙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 생활습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5> 부산광역시민의 평소 교통안전 생활습관

성별	연령대 (세)	무단횡단 않음	녹색신호가 아닐시 건너지 않음	길 건너기 전과 도중 좌우 살핌	차도에 내려와 택시, 버스를 기다리지 않음
남자	19-44	67.0%	88.9%	93.2%	81.9%
	45-64	77.2%	92.2%	95.3%	83.6%
	65-	85.3%	96.7%	96.0%	88.0%
	합계	73.7%	91.3%	94.5%	83.4%
여자	19-44	74.3%	92.2%	94.1%	82.2%
	45-64	80.9%	93.5%	95.3%	87.9%
	65-	85.4%	96.8%	94.7%	80.0%
	합계	78.5%	93.4%	94.7%	85.2%
계	19-44	70.8%	90.6%	93.7%	82.1%
	45-64	79.1%	92.9%	95.3%	85.8%
	65-	85.3%	96.8%	95.4%	87.6%
	합계	76.2%	92.4%	94.6%	84.4%

12) 안전벨트 착용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로선 운전석 98.1%, 조수석 75.1%,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승용차 뒷자석 26.8%,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버스 51.3%로 승용차 뒷자석 및 버스에서의 안전벨트 착용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16>).

운전석 안전벨트는 거의 생활화가 되었지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아직 낮은 편이라 교통사고 시 큰 손상을 위험이 큰 것을 알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규제가 필요하다.

<표 16> 안전벨트 착용여부

성별	연령대 (세)	운전석	조수석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승용차 뒷좌석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버스
남자	19-44	98.2%	73.9%	27.2%	46.3%
	45-64	98.0%	73.6%	27.0%	55.1%
	65-	99.2%	75.7%	30.2%	55.1%
	합계	98.2%	74.0%	27.5%	51.1%
여자	19-44	98.4%	78.5%	25.2%	49.0%
	45-64	97.3%	76.2%	27.4%	55.1%
	65-	84.4%	66.9%	25.4%	55.1%
	합계	97.8%	76.2%	26.1%	51.6%
계	19-44	98.3%	76.3%	26.2%	47.7%
	45-64	97.9%	75.0%	27.2%	55.1%
	65-	97.6%	71.6%	27.8%	52.3%
	합계	98.1%	75.1%	26.8%	51.3%

13) 평소 가정 내 안전행태 생활습관

평소 가정 내 안전행태 생활습관으로는 콘센트 및 전기 코드는 물기가 없는 손으로 만짐 93.9%, 콘센트 한 개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 연결하지 않음 49.0%, 가스 중간밸브 잠금 확인 85.0%, 욕실 사용 후 건조 63.2%, 계단 근처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지 않음 80.0%, 위험한 도구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 94.5%, 창문 주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놓아두지 않음 87.3%로 나타났다(<표 17>).

가정 내 안전행태 생활습관에서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하는 경우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안전 및 화재발생과 관련된 홍보사업을 진행시 문어발식 전기 코드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7> 평소 가정 내 안전행태 생활습관

성 별	연령대 (세)	콘센트 및 전기 코드는 물기가 없는 손으로 만짐	콘센트 한개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 연결하지 않음	가스 중간밸브 잠금 확인	욕실사용 후 건조	계단근처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지 않음	위험한 도구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	창문 주변에 올라설 수 있는 물건은 두지 않음
남 자	19-44	93.0%	44.6%	78.9%	55.1%	81.2%	92.1%	85.7%
	45-64	94.2%	50.2%	82.1%	59.5%	82.8%	94.4%	87.4%
	65-	94.4%	61.2%	89.0%	64.3%	82.2%	95.1%	90.0%
	합계	93.7%	49.2%	81.6%	58.2%	81.9%	93.4%	87.0%
여 자	19-44	94.8%	43.2%	85.4%	64.2%	77.3%	95.4%	86.5%
	45-64	94.0%	51.2%	90.2%	71.9%	76.7%	95.8%	87.8%
	65-	91.8%	60.2%	90.8%	68.0%	84.2%	94.8%	90.4%
	합계	94.0%	48.7%	88.1%	67.9%	78.1%	95.5%	87.6%
계	19-44	93.9%	43.9%	82.3%	59.8%	79.2%	93.8%	86.1%
	45-64	94.1%	50.7%	86.4%	66.0%	79.6%	95.1%	87.6%
	65-	93.1%	60.7%	89.9%	66.1%	83.2%	95.0%	90.2%
	합계	93.9%	49.0%	85.0%	63.2%	80.0%	94.5%	87.3%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맞추어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예방부분으로 나누어 각 계층별의 취약점 및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고찰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1. 교통안전

부산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안전의식 및 행태를 조사해 본 결과, 부산광역시 응답자 전체 중 40.2%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높고 나타났다. 부산시는 손상사망 기전 중 자살에 이어 교통사고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모든 연령대에서 교통사고는 매우 심각한 손상원인이 되고 있다(배정이 외, 2010).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승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자가운전자에 대한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가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이수하는 교육(경찰청, 2009)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며,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교육은 교통신호 지키기, 안전띠 착용하기, 제한속도 지키기 등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을 간과하고 있다(한상진, 김근정, 2005). 즉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성숙한 안전문화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부산시민의 난폭운전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의 교육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을 포함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자의 경우 19-64세 연령층의 69%가 운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운전할 경우가 많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성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시 안전수칙에 대한 지식과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전 행동지침의 교육매체를 제작해 보급(허억, 2005)하는 것도 유용하리라 본다.

부산의 노인인구 중 운전이 가능한 경우가 11.4%로, 고령 사회로 진입한 현재의 시점에서는 노인인구의 운전면허 취득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부산은 다른 광역시보다 노인인구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배정이 외, 2011)에 노인운전자 대상의 안전운행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OECD(2005) 국가 중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사망 구성비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38.8명으로 룩셈부르크 21.9명, 폴란드 18.2명보다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통사고는 고연령층일수록 높아지는 것은 노인의 신체 특성상 감각 및 대처반응속도가 저하(송수연, 2008)되어 사고 발생률 증가와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노인의 신체·생리적 특성에 따른 안전운전교육 실시와 노인의 운전면허 및 적성검사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매체를 통한 노인운전자들의 안전운전 홍보(박봉수, 2008)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노인인구의 주요 교통사고 원인이 보행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school zone)과 유사한 개념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주변을 실버존(silver zone)으로 지정·확대함으로써 노인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실버존과 같이 보행우선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보다 차량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에 방호울타리,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노인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보행자들에 게 안전한 보행습관을 교육하고 홍보(송선정, 2006)하여 노인의 보행안전 지식 및 이해를 높이고, 노인 관련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장을 점검 후 사고유형을 파악해 교육, 시설, 제도 개선 전반에 보다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인구의 경우에는 안전관련 행사 참가 경험 및 참가의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련행사에 관심이 없어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보존과 직결되는 안전벨트 착용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인구가 낮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어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노인인구들은 안전대책 수립 시 노인층을 가장 우선 대상으로 꼽고 있으며, 그 중 교통안전을 중요한 안전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가 자발적인 의식 및 행동 변화는 꺼리는 반면 주위에서 배려 해주기 원하는 부분이라 해석된다. 노인인구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 노인에게 주요 정보 전달 매체인 TV나 라디오를 통해 안전관련 정보교육 및 홍보를 반복적으로 시행해 노인인구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참여형

사를 개최하여 안전의식, 지식 및 실천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적합하리라 본다.

2. 안전사고

부산시민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의식 및 행태를 보면,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응급상황에서의 안전에 대해 취약성을 나타냈는데, 특히 심장 시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조사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 4.8%, 심폐소생술과 같은 안전교육 참여 의향도 18.4%로, 다른 조사대상 연령층보다 월등히 낮은 안전의식을 보였다. 또한 65세 이상은 안전관련 행사에 무관심(34.3%)하거나 귀찮아서(20.1%) 참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을 넘어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인구가 손상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가정 내 안전관련 생활습관은 물기가 없는 손으로 콘센트 및 전기 코드를 조작하거나 콘센트 한 개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하지 않는다든지 가스 중간밸브 잠금 확인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행태는 노인인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2006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및 행태 요인 분석연구에서 나온 결과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 구급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등 이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재빨리 정상박동으로 전환시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비(정시영, 배현아, 어은경, 2009)이지만 최근 심폐소생술의 국내 현황을 보면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빈도는 약 5% 정도로 매우 소극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Song & Oh, 2007). 아무리 기계가 사용하기 쉽게 제작되었다고 해도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안전관련 교육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가정 내에서의 안전사고는 전기감전,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낙상 등으로 일어나는 손상이며, 젖은 손으로 전기코드 만지기 않기(93.9%), 가스중간밸브 잠금 확인하기(85.0%), 위험한 물건은 정해진 장소에 두기(94.5%)와 같은 안전행태는 비교적 높은 수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코드 연결하지 않기(49.0%), 욕실 사용 후 건조시키기(63.2%) 등은 낮은 안전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2005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전기배선으로 인한 화재가 3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하며(한국전기안전공사, 2006), 전선을 꼬거나 묶어서 사용하면 열의 축적으로 화재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이달승, 2007)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해야 하며, 화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종 소방안전교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건조를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욕실을 사용하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는데, Nancy 등(2003)의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욕실에 미끄럼방지 처리 깔개나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로도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적 인자의 개선은 물론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함으로 손상예방을 도모하며, 낙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을 예방을 위하여 노인의 균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가 국제안전도시공인인증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부산광역시 총 17,088가구를 연구대상가구로 표본추출하여 조사 하였으며, 부산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에 대해 조사하면서 노인인구의 안전의식은 교통안전과 가정 내 안전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인식도와 낮은 실천율을 나타내 안전에 취약계층임을 드러냈다. 그 동안 노인의 안전사고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노인의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노인의 교통안전과 가정 내 안전사고에 대해 지자체와 관련단체에서 안전수칙에 관한 책자 및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수. 2009. 교통안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찰청. 2009. 2008 도로교통안전백서. 서울: 경찰청.
- 박봉수. 2008. 노인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영 · 정상태 · 손혜숙 · 염석란 · 배윤희. 2009.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도진단 및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부산광역시.
- 배정영 · 정상태 · 손혜숙 · 염석란 · 배윤희. 2010.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손상률 조사 및 손상감 시체계구축 연구용역 보고서. 부산광역시.
- 미국안전회의. 2010. <http://www.nsc.org/Pages/Home.aspx>
- 수원시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 연구소. 2006. 수원 지역사회 손상지표 가구조사.
- 송선정. 2006. 평생교육으로서의 교통안전교육 연계성에 관한 연구. 서울: 도로교통공단.
- 송수연. 2008.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 서울: 도로교통공단.
- 세계보건기구. 1989. 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en/
- 이달승. 2007. 조명등 화재실험을 통한 발화원인 규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시영 · 배현아 · 어은경. 2009. 1개 3차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서 119 구급대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실태 및 효과. 이화의대지. 32(1): 35-41.
- 조준필 · 박남수. 2008. 지역사회 안전증진 이론과 실제. 서울: 군자출판사.
- 통계청. 2010. 사망원인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2006. 전기재해 통계분석.
- 한상진 · 김근정. 2005. 도시교통안전관리 지침. 서울: 교통개발연구원.

- 허 역. 2005.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방안. 서울: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 Moltke, Heinrich Von. 1980. *Deputy Head of Delegation, Delegation of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t the Washington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Business-Counsellors, Inc. Washington DC.
- Nancy, E, Donna L, Faranak A, Rama C. Nair. 2003. Predictors of Bath Grab-Bar Use among Community-Living Older Adults. *Canadian Journal on Aging*. 22(2): 217-227.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 *Road Transport Research Road Safty Performance-Trends & Comparative Analysis*.
- Song, KJ, Oh DJ. 2007. Current Status of CPR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73: 19-24.
- Lief, Svanstrom & Zhongtang Zhao. 2003. Injury status and perspectives on developing community safety promotion in China.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18(3): 247-253.

裵井璵: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정신건강관리(우울증, 자살) 등이며, 현재 부산광역시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센터장, 부산광역시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 센터장, 인제대학교 국제안전도시연구소장, 건강과학연구소장, 대한손상예방협회 부회장,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학술이사, 대한스트레스학회 정보통신이사, 국가위기관리학회 재난심리연구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창의시정연구위원회 도시안전분과 자문위원, 한국간호과학회 심사위원, 정신간호학회 편집 및 심사위원,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Development of a Web-based Child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Busan Safe City WHO Certification Project”, “Inauguration of the First Psychological Support Center for Disaster Victims in Koreans”, “Development of a User-centered Health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Depressive Symptom Management”, “청소년 물질남용(음주, 흡연, 마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웹기반 전문가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jibai@inje.ac.kr).

鄭尙泰: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화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LG화학 기술연구원에서 환경관련 연구활동을 하였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재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된 연구분야로써 화학물질안전과 관련된 화학방재, 유류오염방재, 연구실안전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Adsorption of elemental mercury vapor by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from a commercial respirator cartridge(2009)”, “Case Studies of Chemical Incidents and Emergency Information Service in Korea(2009)” 등이 있다(hsstc@inje.ac.kr).

孫惠淑: 부산대학교 의학석사와 전북대학교 의학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에 재직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Association of MCP-1 and CCR 2 Polymorphism with the Risk of Late Acute Rejection after renal Transplantation in Korean Patients(2008)”, “Blocking of Monocyte-associated B7-H1(CD274) Enhances

HCV-specific T Cell Immunity in Chronic Hepatitis C Infection(2008)", EQ-5D를 이용한 일개 광역시 성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2008)", "Development of a Web-based Child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Busan Safe City WHO Certification Project(2009)",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건강검진 수진율 간의 관계(2010)" 등이 있다(pms@inje.ac.kr).

廉釋蘭: 전남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의학대학원에서 의학석사,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가천 의과학대학 중앙길병원에서 응급의학과전공의과정을 수료하였고 응급의학과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2002년부터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응급의학교실 조교수로 재직 중이고 전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장, 전 부산응급의료정보센터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외상전문센터 소장이다. 주 연구분야는 외상학, 소생의학 및 응급의료서비스이며 현재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 국제위원, 고시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이며 대한외상학회 평의원, 대한재난의학회 지역이사, 대한임상독성학회 정회원, 대한심폐소생협회 와 미국심장협회 ACLS/BLS Faculty, 대한심폐소생협회 ACLS위원, 부산광역시 구급대책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Journal of Emergencies, Trauma and Shock(JETS) Reviewer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Characteristics and Riage of a Maritime Disaster: an Accidental Passenger Ship Collision in Korea(2009)", "Confirmation of Endotracheal Intubation by Combined Ultrasonographic Methods in the Emergency Department(2009)", "다발성 중증 외상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응급 외상팀 운영의 효과(2009)", "A case of Human Poisoning with a Flufenoxuron-containing Insecticide(2010)", "Use of a Lipid Emulsion in a Patient with Refractory Hypotension Caused by Glyphosate-surfactant Herbicide(2010)", "The Effect of Basic Life Support on Laypersons' Willingness in Performing Bystander Hands Only Cardiopulmonary Resuscitaion(2010)" 등이 있다(seokrany@yahoo.com).

朴賢周: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부산광역시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 연구원,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연구원, 대한손상예방협회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본부 운영이사,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학술위원, 부산광역시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 심리지원전문가, 부산울산경남 정신간호학회 학술간사,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사, 정신전문간호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미국이민 한국인의 우울 및 관련 요인", "이민 한국인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우울", "미국이민자의 정신건강 구조모형", "다문화가정의 '우리가족 되어가기'에 관한 연구", "홍수피해자의 경험연구", "자아발견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등이 있다(joo1007kr@hanmail.net).

曹成一: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07년부터 동의의료원 재활치료센터 물리치료사로 재직 중이다. 부산광역시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연구원, 인제대학교 국제안전도시 연구소 연구원, 국가위기관리학회 실행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부산광역시 낙상 실태조사", "Busan Safe City Program: Towards a Healthy, Safe and Dynamic Busan"이 있다(zfsi82@hanmail.net).

투 고 일: 2011년 11월 17일

수 정 일: 2011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1년 01월 04일

A Study on the Safety Awareness and Behavior of the Citizens of Busan

Jeong Yee Bae, Sang Tae Chung, Hae Sook Sohn,
Seok Ran Yeom, Hyun Joo Park, Seong Il Cho

This study surveyed the safety awareness and behavior of the citizens of Busan to get basic data for the prevention of safety-accident, and a total of 17,088 households in Busan Metropolitan City were selected by systematic sampling as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As the research methodology,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by direct visits to interview with the subjects and were collected. Based on the data with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having a 95% confidence level with $\pm 3.0\%$ error, the safety awareness and behavior were investigat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n the safety awareness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elderly people were lower degree of perception and lower rate of practice than the other age group, revealing that the elderly people were vulnerable to safety-accident. Particularly, for the traffic safety, the education and promotion of safety regulations for elderly people in driving or walking can be said to be urgently needed. Accordingly,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programs such as participatory education for the entire Busan citizens on the promotion of safety awareness and the prevention of safety-accident, the enactment of the policies to prevent damages and to promote safety for the elderly population is needed.

Key words: the citizens of Busan, safety awareness, safety behavior